

꿈을 향해 스파이크! 미래의 문성민 키운다

120명 참가...지난해보다 3배 늘어
배구 본연의 재미에 커리큘럼 초점
저변 확대·선수 육성 두 토끼 잡기

지난해 V리그는 프로 출범 이후 최고의 해를 맞았다. 정규리그 평균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 면에서도 농구를 제치며 겨울 스포츠 왕좌를 차지했다. 특히 3월에는 국내 최고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 시범경기과 맞붙어서도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4대 스포츠 중 가장 프로화가 늦었음에도 이뤄낸 성과지만, V리그가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유소년 육성 사업 때문이다. 프로화가 된 지 올해로 13년이 되었지만, 축구나 농구 같은 프로구단 중심의 유소년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자리잡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비로소 KOVO(한국배구연맹)의 지원으로 각 프로구단 중심의 유소년 클럽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진행된 프로구단 유소년 클럽 사업 중 눈에 띄는 곳이 있다. 바로 스카이워커스 유소년배구교실이다. 지난해 9월, 4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한 스카이워커스 유소년배구교실은 올해 3배 이상 인원이 증가해 12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2번째 유소년배구교실을 진행 중이다.

스카이워커스 유소년배구교실이 저변도 없던 배구 유소년사업에서 1년 만에 성과를 낸 중심에는 모 구단인 현대캐피탈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다. 단순히



스카이워커스 유소년배구교실에 참여한 학생과 코치들이 스카이워커스의 첫 글자인 'S'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스카이워커스 유소년배구교실

외부업체나 유명 강사에게 맡기는 이벤트성 운영이 아닌, 배구를 중심에 둔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연구와 지원부터 연고지 내 시설 활용, 지역배구 동호회의 적극적인 협조 등 배구교실 운영이 있어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 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카이워

스 유소년배구교실은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 학부모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배구 본연의 재미와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달하기 위해 선수 출신의 강사와 운영 전담팀이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배

구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스카이워커스 유소년배구교실의 김민석 팀장은 2일 “기존에도 많은 배구교실이 존재했지만, 배구의 즐거움을 알려주기보다는 배구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우리 스카이워커스 유소년 배구교실은 배구 본연의 즐거움을 알려주면서 배구의 저변 확대와 배구의 인재 풀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스카이워커스 배구교실의 목표에 대해 말했다.

김 팀장은 계속해서 “배구는 종목 특성상 키가 매우 중요하다.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보면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배구를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봤다. 학생들과 선수 지망학생들이 부담 없이 배구를 즐기는데 유소년 배구교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클럽에서 비교적 부담 없이 배구를 즐기고 배우면서 신체조건과 재능이 발견되면 그때 선수로서의 도전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배구를 통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유소년 배구교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소년 사업은 프로스포츠의 근간이다. 단순히 선수 육성뿐 아니라 배구라는 종목의 저변 확대, 팬 확보를 하는 데에도 유소년 사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V리그의 인기 상승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는 프로배구가 유소년 사업의 육성과 투자를 통해 긴 전성기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브라질→러시아 귀화 페르난데스의 월드컵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중국적자가 특정 국가의 성인 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이전이면 자유롭게 대표팀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덕분에 디에고 코스타(스페인), 알렉스 이위비(나이지리아), 마리오 페르난데스(러시아) 등의 선수들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바꿔 입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리오 페르난데스의 행보가 눈에 띈다. 189cm의 큰 키와 좋은 체력을 가진 페르난데스는 조별 예선 첫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부터 이집트와 우루과이와의 경기까지 모두 선발 출장하며 러시아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다. 1일 열린 스페인과의 경기에도 연장전까지 소화해내면서 8강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페르난데스는 2014년 10월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서 브라질 국가대표로 데뷔했지만 2016년 대통령령으로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다. 하지만 5년동안 러시아에서 거주해야 하는 규정에 발목을 잡혀 2017년 4월 러시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작년 10월 대한민국의 평가전에서 러시아 소속으로 첫 A매치를 치렀다.

페르난데스는 귀화 당시 “꼭 시민권을 받고 러시아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브라질 소속으로 치른 친선경기가 FIFA의 주관 하에 펼쳐진 경기가 아니었기에 러시아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페르난데스는 별도의 적응기간 없이 팀에 녹아들며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하고 있다.

신동현 대학생 명예기자 rerydh93@naver.com

한승수·김동욱 “팀보다 위대한 선수 없다”

(쇼트트랙)

청춘, 청춘을 만나다

개인 위해 욕심내는 선수 팀에 없어
국대 선발전 성적 굿...베이징 도전

많은 선수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며 꿈을 키웠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선수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한승수(스포츠포토·28)와 김동욱(스포츠포토·26)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스케이트 끈을 묶었다. 소

속팀 훈련을 마친 지난 6월 22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소속사 사무실에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승수는 2014년 국가대표팀에 처음 합류했다. 첫 출전한 2014/15 독일 드레스덴 5차 월드컵에서 1500m 은메달을 획득했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뒤 무서운 성장을 보였다. 2016/17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대회 겸 4차 월드컵에서 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장거리 종목뿐만 아니라 단거리 종목에서도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7/18시즌은 김동욱에게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트랙 한승수(왼쪽)와 김동욱. 사진제공 | 스타크로페이션

에서 좋은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1차 선발전에서 8위를 기록하며 자신의 역대 시즌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승수와 김동욱이 소속된 스포츠포토는 최고의 팀워크를 보이며 올해 팀 우승

을 차지했다. “저희 팀 선수들이 다른 팀 선수들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개인을 위해 욕심내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흡을 더 잘 맞출 수 있었어요”라며 우승소감을 전했다.

지난 아쉬움은 잊고 김동욱과 한승수는 다가오는 새 시즌 준비에 나섰다. “작년 시즌이 4월 말에 끝났는데 저희 팀이 5월 5일 러시아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작년에 다른 팀에 비해 운동을 빨리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8/19시즌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2022년 베이징에서 두 선수의 성공적인 도전 스토리를 통해 많은 선수들이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안소윤 대학생 명예기자 95thdbs@naver.com

기능성 냉감원단에 멋진 스타일까지

차가운 촉감이 좋은 티

촉감좋은 스포츠 티셔츠로, 쾌적하게 운동하라
‘윈드 스트라이프 티셔츠’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운동할 때 꼭 필요한 옷이 있다. 몸의 열기를 식혀줄 ‘냉감기능’이 기본이다. 여기에 짙게 들어나는 ‘신축성’과 쾌적한 ‘통풍성’까지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가 아니다. 또 한가지 필수조건은 ‘기본’은 촉감이다. 오랜 시간 격한 활동을 해도 옷이 몸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갖춘 옷이 바로 윈드 스트라이프 티셔츠다. 특수 냉감처리와 고신축 원단으로 어떤 스포츠에도 전천후로 입을 수 있는 만능 스포츠웨어다. ‘냉감기법’의 후가공으로 흡습속건 기능성원단의 기능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시원하면서도

쾌적함이 남다르다. 통기성 또한 매우 뛰어나고 불쾌한

땀 냄새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운동 후에도 기분이 산뜻하다. 폴리 기능성원단 92, 스포츠 8의 신축성 좋은 원단으로 스포츠의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윈드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파스텔 톤의 느낌으로 선명한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돋보인다. 정갈한 스트라이프 문양이 깔끔하면서도 청량한 느낌을 준다. 가슴에는 실용적인 지퍼형 주머니가 있어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국내생산으로 품질을 더욱 믿을 수 있다.

100% 국내생산



블루

퍼플

네이비

제품명 윈드 스트라이프 티셔츠 색상 마린, 블루, 퍼플, 네이비 사이즈 95, 100, 105, 110, 115, 120
할인특가 2장 ₩129,000 → ₩39,000 3장 ₩55,000 4장 ₩69,000

제품신청 1588-9440 소핑몰 www.dasim.co.kr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심, 카드결제가능 (3~5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땀살 나온 중년에게 인기만점이다

고무줄로 편하게 입고 나서자

등산복·일상복은 물론 수영복으로도 안정맞춤
‘4포켓 고무줄반바지’

4포켓 고무줄반바지는 정말 편안한 바지다. 마치 안 입은 듯 가벼울 뿐 아니라 고무줄 바지라서 착용감이 엄청 편하다. 일상복으로 입거나 잠근채에서 산책할 때도 좋다. 격한 움직임에도 활동성이 뛰어나며, 물에 젖어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계곡이나 바닷가, 워터파크 등에서는 수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계곡이나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세 마른다. 등산은 물론 배드민턴·사이클 등 레저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는 옷이다. 4포켓 고무줄반바지는 주머니가 4개라 더욱 실용적인 7부바지다. 무릎을 덮는 적당한 길이로 반바지에 거부감을 느끼는 중년들이 입기에도 안정맞춤이다. 지퍼달린 주머니가 양옆에 2개, 허벅지에 1개, 뒤에 1개 모두 4개가 있어, 일반 트레이닝반바지와 달리 지갑이나 여러 소지품들을 수납하기에 좋다. 별도의 가방 없이도 등산이나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절 넣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 산행할 때는 물론 휴가철 여행에서도 소지품 분실걱정 없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다. 고기능성 흡습속건 원단을 사용하여 땀이 흐르는 즉시 흡수해서 바로 말려준다. 땀을 많이 흘려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고 항상 쾌적하다. 가벼운 착용감으로 하루종일 입고 있어도 편안한 바지다.

제품명 4포켓 고무줄반바지 사이즈 M(30-31), L(32-33), XL(34-36), 2XL(37-39), 3XL(40-42), 4XL(43-44)
할인특가 1장 ₩49,000 → ₩29,000 2장 ₩53,000 3장 ₩75,000 색상 네이비, 그레이, 블랙

제품신청 1588-9440 소핑몰 www.dasim.co.kr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심, 카드결제가능 (3~5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이달의 특가

29,000원
4XL까지



그레이

블랙

네이비

뒷주머니